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통해 본 남성문인 비교 연구 - 이문열의 『선택』과 귄터 그라스의 『넙치』를 중심으로

장 순 란*

1. 들어가는 말
2. 서양 남성 문인들의 성 담론
3. 그라스의 『넙치』: 모성에 대한 동경
4. 이문열의 『선택』: 현모양처의 전형적 여성상
5. 이문열과 그라스의 여성표상의 차이
6.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역사, 문화적 배경 및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여성에 관해서는 동일한 표상과 견해를 지니고 있는 동·서양 현대 남성문인들의 성의식을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입각하여 비교·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70년대 서양에서 페미니즘이 한창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가 발표한 소설 『넙치』를 페미니즘 주제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90년대 페미니즘이 한국사회에서 한창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여성주의자를 겨냥하며 집필한 이문열의 소설 『선택』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들 두 남성문인들은 페미니즘의 사회적 영향력이 자국에서 확산되고 있을 때, 제각기 문학을 통해 페미니즘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 담론에 관여하였다. 계급문제보다 성문제를 보다 심각한 인간 삶의 문제로 인식하며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의 새로운 성적 삶의 이해와

* 서강대학교 독일문화 전공 교수

발상은 기존 시민사회의 성규범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남성 지식인들이 불안과 위협을 느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라스와 이문열은 자신들이 소망하며 상상하는 모성적 여성표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문화적 공론화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에 개입하는 그들의 역사적, 정치적 관점과 견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문학을 통해 페미니즘에 개입하는 이들 두 남성문인들의 소설 텍스트 비교를 통해 여성주의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그들의 관점과 시각을 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대적 인간(남성) 주체의 모순과 한계를 살펴본다. 우선 페미니즘 비평이 문제시하며 주목하는 여성의 전통적 성적 역할과 특징이 서양의 경우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18세기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두 남성문인들의 소설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면서 가부장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주제어 : 남성작가, 페미니즘, 자연, 이문열, 쿤터 그라스

1. 들어가는 말

20세기 말 한국사회에 유입된 서양의 다양한 학문, 이론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담론 중의 하나는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의 열풍으로 문단에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또한 여성문제를 다룬 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가 90년대라면, 독일의 경우에는 70년대로 볼 수 있다. 『양철북』(1959)으로 일약 전후 독일 문단의 대표작가로 군림한 쿤터 그라스(1927-)는 70년대 초 발표한 소설 『달팽이의 일기』에서 양성의 대립과 투쟁이 지양된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었다. 그러나 곧 이어 발표된 소설 『넵치Butt』(1977)에서는 양성합일의 유토피아 도래가 지극히 회의적이며 비관적인 전망으로 서술된다. 비평가 기젤라 센은 그라스

가 시대적 모순을 통찰하며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식인이지만, 여성에 대한 의식은 “보수적이며 거의 전근대적”이라고 규정한다.¹⁾ 그녀는 그라스의 소설 『넙치』를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거부와 경고를 담은 ‘여성 적대적’ 작품으로 특징지었다. 유사한 경우가 한국의 문단에서도 일어났다. 『사람의 아들』(1979)로 단숨에 한국 문단의 대표적 작가로 군림한 이문열은 페미니즘 담론이 한창인 90년대 소설 『선택』을 집필하였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한국 여성주의자들의 집중적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이 소설은 페미니즘의 유행과 열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작가 이문열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긴 텍스트이었기 때문이다.

그라스와 이문열은 페미니즘이 한창 전 지구적 관심과 주목을 끌며 확산되고 있을 때, 제각기 자국에서 문학을 통해 페미니즘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 담론에 관여하였다. 본고는 역사·문화적 배경 및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다르지만, 여성에 관해서는 유사한 표상을 지니고 있는 남성문인들의 성의식을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입각하여 비교·조명하고자 한다. 첫 장에서 우선 페미니즘 비평이 주목하는 여성의 성적 특징 및 전통적 성역할이 서양의 경우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담론이 가부장 사회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오늘날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여전히 문학에서 재구성되며 작용하고 있는지를 독일과 한국 동시대 남성문인들의 소설분석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근대적 인간(남성) 주체의 모순과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서양 남성 문인들의 성 담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1990년 발간한 공저 『사랑은 지극히 정상적인 혼란』에서 근래 수십 년간 변화한 서양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

1) Irmgard Elsner Hunt, *Mütter und Müttermythos in G. Grass' Der Butt*, Frankfurt/M. 1983, S. 1.

이 서술한다. “오늘날의 남녀들은 동거나 이혼, 계약결혼 등을 시도하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 사랑과 결혼, 새로운 모성과 부성, 연인과 친구관계를 조정하려고 분투하면서 삶의 올바른 방식을 찾아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멈춰 세울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것은 계급투쟁 다음에 닥쳐 온 지위투쟁으로 볼 수 있다.”²⁾ 이와 같이 분석한 현대사회의 도래에 20세기 후반 대두된 페미니즘 성 담론의 영향과 확산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서양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성문제를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인간 삶의 모순과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³⁾ 이들은 성차별의 원인을 가부장제로 보고, 성 투쟁을 통해 사회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삼았다.⁴⁾ 당시 여성들에 의한 가부장제 타파와 동등권 요구는 서양 시민사회의 전통적 성규범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서구가 주도해 온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퇴행적 인간의 역사로 규정하고,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 기존과 다른 형태의 삶을 도래시키기를 꿈꾸었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이러한 비판정신과 함께 대두되어 학계에 자리 잡게 되었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이 맨 처음 시도한 것은 고전으로 꼽히는 18, 19세기 남성 지식인 문인들의 성의식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여성학자들은 이 시기에 남성 문인들의 성 담론을 통해 여성들의 모습이 극단적 두 유형으로 제시되면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것은 남성을 불안케 하고 위협하는 유혹적 존재로서의

2) Ulrich Beck/Elisabeth Beck-Gernsheim,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M. 1990, S. 9.

3) Vgl. Verena Stefan, *Hütungen*, München 1980, S. 26. “Sexismus geht tiefer (...) als Klassenkampf(성차별이 (...) 계급투쟁보다 더 뿌리가 깊다).”

4) 페미니즘은 전후 유럽의 68학생 운동세대들이 서양 시민사회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 구상한 탈근대 담론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전후 세대 젊은 지식인 여성들이 주도가 되었으며, 이들은 18세기 이래 발전되어 온 서양 시민사회를 이성, 남성중심의 퇴행적 역사로 규정하고 억압된 여성성, 여성주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부장 사회의 구조변화를 목표로 삼았다.

여성상과 위로와 위안을 주는 모성적 포근한 여성상이었다. 가령 괴테가 여성을 순진무구한 선한 존재로 자신의 문학에서 숭배와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쇼펜하우어는 여성을 간교하고 사악하며 파괴적인 위험한 존재로 특징지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표상에 있어서 공통점은 그들 모두에게 여성은 ‘자연’이라는 표상이다. 당시 프랑스 남성 지식인 루소는 성별 특징을 의지/자연, 이성/감성, 형식/소재, 적극성/수동성 등 이분법적 대립의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여성은 육체로 드러나는 생물학적 특징 때문에 남성보다 더욱 밀접하게 자연과 결부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자연적 속성을 지닌 여성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어머니, 아내, 주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에 의하면 “여성의 명성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달콤한 찬사를 듣고 많은 숭배자를 갖고 집회에서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양을 쌓고 책을 많이 읽어서 남편에게 이해심 많은 친구이자 신뢰감을 주는 아내, 동시에 좋은 주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⁵⁾

이 시기 서양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통해 봉건 신분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시민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정이란 사적영역과 사회의 공적영역이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핵가족 구성을 위한 필수적 존재로 자리매김 된다. 여성들의 활동영역은 전적으로 가정의 사적 영역에 국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성들 뒤에는 언제나 명령하고 지시하는 아버지, 남편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법, 제도, 관습들이 형성되어가던 시절, 루소의 여성규정은 독일 남성지식인들의 성적 표상 및 성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루소의 규정을 토대로 독일지식인들은 시민사회 남녀의 성적 역할과 성규범을 상세하게 구분·규정하고 일상적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학자 캄페는 『나의 딸을 위한 아버지의 충고』(1788)에서 극도의 감정통제, 즉 인내, 절제, 체념을 독일의 딸들에게 권하며 여성에게 지식이

5) Marianne Burkhard(Hg.), *Gestalt und gestaltend. Frauen in der deutschen Literatur*, Amsterdam 1980, S. 39.

란 가정을 잘 꾸러가기 위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캄페는 해박한 지식은 여성을 신에 대한 외경심, 겸손과 도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고, 딸들에게는 아들과 달리 정신력을 요하는 학문과 외국어 습득, 여행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당시 선진국이었던 프랑스 지식인 루소가 “집 밖의 여자는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광택을 상실하며 그녀의 진정한 치장이 박탈되어진다.”⁶⁾고 하며 여성은 자신의 소망, 욕망을 결코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독일문인 칸트도 여성은 창조적 학문의 영역에서 독창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지식과 교양의 추구는 오히려 여성의 행복한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된 배움 혹은 힘든 숙고는 비록 그것이 여성을 드높인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성에 고유한 장점들을 없앤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은 드물기 때문에 경이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다른 성에 대해 커다란 힘을 행사하는 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⁷⁾ 여성들은 이 시기 계몽주의 남성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성 담론을 통해 철저히 공적 사회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예컨대 여성들은 공적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정치적 참정권, 사회적 발언권도 없었다. 이를테면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권리와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행사했다.⁸⁾

6) Rousseau(1758), Ursula Geitner, “Die eigentlichen Engragees ihres Geschlechts”. Aufklärung. Französische Revolution und Weiblichkeit, in: Helga Grubitzsch, *Grenzgängerinnen. Revolutionäre Frauen im 18. und 19. Jahrhundert*, Düsseldorf 1985, S. 190.

7) Wilhelm Weischedel(Hg.), *Kant Werkausgabe Bd. 2*. Frankfurt/M. 1982, S. 852.

8) 이문열 소설 『선택』의 장씨 부인이 살았던 조선조의 성규범도 18세기 독일과 유사하다. 독일 프로이센의 가부장 법령처럼 칠거지악과 삼종지도를 사회적 계율로 지정하고 ‘주부, 어머니, 아내’로서의 여성 역할을 주입시켰다. 학식 높은 남성선비들이 만든 성규범은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역할을 지시하며 여성의 영역을 가정에 국한하며 남성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다. 예컨대 남편이 죽은 여성은 재혼금지법으로 평생 수절을 해야 했다. 만약 과부가 재혼할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아야 했으며 자녀에 대한 권리는 상실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여성의 정절, 수절은 당연한 관습이 되었다. 참조 장진숙, 「중세여성의 유명인가? 현대적 재창조인가? -고전문학 연구자의 눈으로 본 이문열의 선택」,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70쪽.

19세기에서도 이러한 안과 밖으로 분리된 시민사회의 성역할과 성의 식은 그대로 존속되며 유지되었다. “자연과 성서가 부과한 성별에 따른 일의 분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은 당연하다. 남성은 전투와 노동을 위해 존재한다. 여성은 순수하고 온화한 내면의 감정을 가꾸고, 남성이 획득한 재산을 지키며 가정을 가꾸고 보살피며 이끌어 가는 데에서 신이 부여한 과제를 찾는다. 전투와 노동은 남성의 당연한 일이며, 여성은 남성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준다.”⁹⁾ 이러한 이분법적 성별 관계와 구조를 정당화하는 성 담론이 18세기에는 ‘신’과 ‘자연’ 개념을 토대로 남성 지식인들의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사변적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면, 19세기 중반 경부터는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등 소위 경험과 실험을 통한 실증주의 자연과학 지식의 등장으로 본질, 자연에 입각한 남녀의 성적 차이는 더욱 객관적 근거를 획득하며 정당화되고 강화되었다. 신분적 차별과 계급적 모순이 없는 공동체 인간사회를 꿈꾸었던 사회주의자 베벨, 엥겔스도 여성규정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자연 표상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이들 남성지식인들의 성적 표상에 따르면 남성은 자연을 지배·정복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주체적 존재이지만, 여성은 자연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남성을 보조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의하면 문제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자연적 성적 표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진리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여성들은 천사, 성녀로 칭송되며, 남성의 영역 및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적인 여성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불

9) 이 언급은 여성운동을 강력하게 반대한 한스 야콥스가 1865년 일반 독일여성모임(ADF) 창립을 겨냥하며 한 말이다. Vgl. Barbara Sommerhoff, *Special Frauenbewegung* Hamburg 1995, S. 9.

10) 독일의 민법 1356조: 여성은 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성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결혼과 가정생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유효하다. Vgl. Barbara Sommerhoff, *Special Frauenbewegung*, Hamburg 1995, S. 28.

화를 조장하는 악녀, 마녀로서 단죄되었다. 여성들은 성녀 또는 악녀의 문학적 상징 이미지를 통해 구원과 희망 또는 저주와 파괴를 나르는 이중적 존재로 표상되면서, 서양 근대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어왔던 것이다.¹¹⁾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바로 수세기에 걸쳐 이어 온 이러한 남성 지식인들의 문학을 통한 여성표상과 여성성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상상적 여성표상이 20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성문인들의 문학을 통해 재현되면서 억압 및 통제의 사회적 기제와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¹²⁾ 그러면 이러한 이중적 상상적 여성 표상들이 독일과 한국의 대표적 남성문인 그라스와 이문열의 소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그라스의 『넙치』: 모성에 대한 동경

소설 『넙치』는 그라스의 사생활이 반영된 자전적 요소와 환상적 허구적 상상력이 중첩된 복잡한 서사층위를 가진 장편소설이다.¹³⁾ 소설 『넙치』의 일인칭 화자(Erzähler)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의 마더 콤플렉스를 처음으로 이야기 한 사람은 일제빌이었던가 아니면 그리젤데

11) 18, 19세기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파악 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표상으로 나뉜다. 괴테, 슐레겔, 노발리스와 같은 이상주의 관념론자들에 의하면 자연은 그 자체로 우주론적 신적 원리로 파악된다. 자연은 인간이 끝없이 접근해야 하는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목표는 자연과의 합일·일체이다. 반면, 허무주의 관념론자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신적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하는 악마적 원칙이다.

12) Vgl. Vera Nünning, Ansgar Nünning, *Methoden der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lichen Textanalyse*, Stuttgart · Weimar 2010, S. 252.

13) 이 소설은 세 겹의 복잡한 서사층위를 가지고 있다. 일인칭 화자의 가정생활, 역사속의 여성들 이야기, 현재의 페미니즘 여성법정, 이 세 차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형식을 비평가 볼커 노이하우스는 틀 소설(Rahmenerzählung)이라고 특징짓는다. 첫 번째 틀 속에서 일인칭 화자, 즉 남편이 아내에게 들려주는 역사차원의 이야기는 내부이야기(Binnenerzählung)가 된다.

였던가? (...) 어쨌든 일제빌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아주 심하게. (...) 아무튼 그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그가 어머니와 극단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그 남자를 잘 보라. 그 사내의 이마는 주름살투성인데도 영원히 젖먹이 유아 상태로 머물고 있다’ (...).”¹⁴⁾ 소설 속 일인칭 화자는 작가 그라스와 동일시해도 무방하다.¹⁵⁾ 그라스와 별거 또한 동거하고 있는 두 여성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소설 『넙치』에 반영되어 있다. 소설 속 화자의 부인 일제빌은 그라스가 첫 번째 부인 안나와 결별한 후, 동거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두 번째 여인 베로니카를 지칭한다.¹⁶⁾ 그러면 그라스와 살면서 그와 관계한 여인들이 특징짓고 있는 그라스의 마더 콤플렉스가 『넙치』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소설 속 문장 “내가 올라가는 동안, 너는 사다리를 잡아라.”¹⁷⁾로 그라스가 암시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긴 남성 뒤에는 언제나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뮤즈로서의 여성들이 반드시 있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가정과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 이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할 당시, 그라스는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버지였다. 『양철북』의 성공으로 일약 유명문인이 된 그라스는 왕성한 정치적 사회활동으로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었다.¹⁸⁾ 첫 번째 부인 안나와 갈등과 불화가 생긴 것은 바로 그라스가 유명

14) “War es Ilsebill oder Griselde, die als erste von meinem Mutterkomplex sprach (...) Jedenfalls sagte Ilsebill: Den hat er. Und zwar handfest. (...) Jedenfalls läßt sich fast alles bei ihm auf seine extreme Mutterbindung zurückführen. Guckt ihn euch an: Der Junge hat, obgleich schon schrumpfköpfig, ein Brustkind auf ewig geblieben (...)”
Günter Grass, Werkausgabe in 10 Bde. Bd. V, S. 457, hrsg. v. Volker Neuhaus, Darmstadt/Neuwied 1987. 이하 WA로 표기함.

15) Volker Neuhaus, *Günter Grass*, 1979, S. 134.

16) Michael Jürgs, Bürger Grass, *Biographie eines deutschen Dichters*, München 2002, S. 292

17) “Halt mal die Leiter, während ich steige”. Günter Grass, WA Bd. V, S. 40.

18) 당시 그라스는 유명문인으로서 사회민주당(SPD)을 지지하는 당원이었다. 동방 정책으로 유명해진 독일수상 빌리 브란트의 선거전에 뛰어들어 사민당과 브란트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문인이 된 후부터였다. 그라스의 소설 『넙치』는 당시 파트너들과 불화를 겪고 있던 자신의 사생활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라스는 소설 『넙치』를 집필하기 전까지 시민사회의 인습적 성구분에서 오는 남녀의 역할분담을 당연시하였다. <단치히 삼부작>으로 일컫는 그의 초기 소설들에서 성 역할은 남성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성은 집안에 머물면서 가사와 아이를 돌보며 남성을 격려하고 보조하는 역할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라스는 1977년 발표한 이 소설을 통해 전통적 이분법적 성적 질서가 흔들리며 해체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며 문제 삼기 시작한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의하면 남성작가는 언제나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상상하고 욕망하면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로 만든다고 한다.¹⁹⁾ 남성에게 자신의 삶이 희생되고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면, 여성은 보부아르적 의미에서의 ‘타자’가 된다.²⁰⁾ 그라스의 소설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라스는 자신이기도 한 소설 속 ‘나’를 통해 모성적 여성상을 동경하며, 이러한 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성들에 대해 냉소적,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면 소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라스의 소설에서 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요리를 하고 보살피며 양육하는 자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여성을 ‘자연’으로 규정한 18세

19) 60년대 말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개된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을 신비화, 이상화시키는 남성작가들의 텍스트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이미지의 분석이었다. 메리 엘만에 의하면 남성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여성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수동성, 히스테리, 편협성, 순결성, 비합리성, 순종성, 반항성” 등들에 박힌 이중적 상투적 이미지라고 분석하였다. Vgl. Vera/Ansgar Nünning(Hg.), *Methoden der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lichen Textanalyse*, Stuttgart·Weimar 2010, S. 252.

20) ‘타자’는 여성의 주체화를 최초로 요구한 보부아르의 여성주의 사고의 기본범주이다. “남성, 여성이라는 이 대칭적인 항목이 관청의 기록이나 또는 신분증명서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이며 나타난다는 것은 단지 외적일 뿐이다. 이 두성의 관계는 전기의 음극, 양극의 관계와 똑 같지는 않다.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이다. (...) 여성은 본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남성은 주체이며 절대자이다. 여성은 타자이다.” Simone de Beauvoir, *Das andere Geschlecht. Sitte und Sexus der Frau*, Hamburg 1968, S. 10.

기 서구 남성문인들의 성적 표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가령 그라스의 출세작 『양철북』에서 감자색깔의 4겹치마를 껴입은 주인공 오스카의 할머니 형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은 그에게 언제나 근원적 자연, 모성과 관계된다. 늘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감자를 캐는 할머니는 자연의 상징인 대지와 결부되어 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오스카는 어머니 대신 할머니의 풍성한 치마 밑으로 기어들어 가고 싶어 한다. 그 치마 속에서 오스카는 “현존재의 총체성이 여전히 변증법적 모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근원”²¹⁾을 느낀다. 여성은 그라스에게 문명에 의해 때 묻지 않은 원시적 모태로서 순수한 자연 그 자체로서 표상된다. 요리하기 위해 감자를 캐는 할머니처럼 소설 『넙치』에서도 아홉 달에 걸쳐 등장하는 11명의 여성들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 식량을 마련하고 음식을 만든다. 그라스는 또한 여성을 언제나 생물학적 육체적 존재로 표상한다. “여성들 오직 그들에게서만 제 시간에 젖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 원칙적으로 여성들은 어머니이다.”²²⁾ 그라스는 『넙치』에서 수유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어머니’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그라스는 역사 이전 모계사회에서 남성과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여성의 시조 원어머니(Urmutter)를 유방이 셋 달린 여성형상으로 묘사했다.²³⁾ 생명의 원천인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할 때 마치 암소처럼 유순해지며 자연과 더욱더 유사해 진다고 한다. 그라스는 여성을 자궁과 유방이 없는 남성과 비교하며 생명을 잉태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가꾸는 여성을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이며 위대한 존재로 고양시킨다. “(...) 여성들은 사후의 삶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생명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자들은 오직 자기 외부에서만 사후의 삶을 증명할 수 있다. (...) 아이를

21) Heinz Ide, *Dialektisches Denken im Werk von G. Grass. Zitiert nach Claudia Meyer-Iswendt*, Frankfurt/M. 1991, S. 104 f.

22) Günter Grass, WA Bd. V, S. 467.

23) “내 말을 믿어요. 일제빌, 그녀는 유방을 세 개 가지고 있었소. (...)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석기시대의 모든 여인들은 아우아, 아우아로 불리었소.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에데크라 불렀소.” G. Grass, *Butz*, S. 7.

낳을 수 없는 자는 아무튼 추정으로 아버지일 뿐이며, 그 때문에 남자는 자연 앞에서 왜소한 존재가 된다.”²⁴⁾ 이 소설의 서사는 여성의 임신기간을 상징하는 아홉 달의 9장에 걸쳐 진행된다. 소설 속 또 하나의 내부 이야기로 전개되는 역사 속 열 한명의 여성 요리사들은 소설 속 화자의 아내 일제빌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역사 속 여성들과 관계하는 남편이나 애인들은 일인칭 화자인 ‘나’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역사이전 모계사회 때부터 그라스가 이 소설을 집필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 이야기에 등장하는 11명의 여성들은 모두 예외 없이 남성들과 아이들 또는 타인을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 요리를 한다. 그라스는 여성들을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수유하고 요리하며 양육하는 모성적 여성으로 묘사한다.

여성에 대한 모성적 긍정적 표상과 더불어 그라스의 소설에서는 부정적인 여성표상들이 동시에 형상화된다. 소설의 여덟째 장 <아버지 날>에서 레즈비언들이 보여주는 동성애 장면과 그 중 한 여성이 불량배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의해 당하는 성폭행 장면은 지극히 혐오스럽고 잔인하며 엽기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²⁵⁾ 그라스는 전통적 여성표상에서 벗어나 일탈하고 탈선하는 여성들과 그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그라스는 소설에서 모성적 여성성으로부터 일탈한 여성들이 보이는 광기와 파괴적 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여신 칼리를 본보기로 제시한다. “칼리 여신은 시바신의 여성적 모습으로 간주된다. 그녀의 힘은 파괴적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24) “Ihnen, nur ihnen schießt pünktlich die Milch ein. Ja, aus Prinzip sind sie Mütter(...) Frauen müssen nicht fürs Nachleben sorgen, weil sie Leben verkörpern; Männer hingegen können nur außer sich Nachleben beweisen (...) Wer nicht gebären kann, ist allenfalls mutmaßlich Vater und vor der Natur arm daran”. Günter Grass, WA Bd. V, S. 467.

25) 이 장에서 남성처럼 가장한 3명의 레즈비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인조 남성 생식기를 달고 함께 있던 여성 지빌레를 강간 한다. 같은 여성들로부터 강간당한 지빌레는 이어서 일곱 명의 남성 오토바이족들에게 집단강간을 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된다.

그녀는 간신히 서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린다.”²⁶⁾ 그러면서 그라스는 작중화자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소설은 그라스가 급진적 현대 페미니스트들을 겨냥해 집필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파괴적인 칼리여신의 모습을 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그라스의 소설에 의하면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며, 세상의 온갖 무서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라스에 의하면 여성의 본성인 모성원칙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이다.

그라스는 여성을 한편으로 생명, 돌봄, 사랑, 희망을 구현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로 그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차갑고 무서운 섬뜩한 존재로 그린다. 그렇지만 그라스는 이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여성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생명의 근원인 태고의 원초적 어머니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라스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신비화하고 이상화해 온 18, 19세기 근대 서양 남성 지식인들의 성 담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자신에 대해 그라스는 한 인터뷰에서 방어적으로 대꾸한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마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나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콤플렉스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자신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에게 달려가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상실해 버리고자 한다면 그는 더욱 가난해 지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우리시대의 무서운 질병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콤플렉스를 필요로 한다.”²⁷⁾ 그라스는 ‘영원한 여성적’인 모성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자신의

26) “Die Göttin Kali gilt als weiblicher Aspekt des Gottes Shiva. Ihre Kraft zerstört. Nach Laune reißt sie ein, was notdürftig steht. Wir leben in ihrem Zeitalter.” G. Grass, WA Bd. V, S. 205.

27) “I have a marvelous mother complex and nobody will make any money with my mother complex except me. I never will meet with an analyst. I think it is one of the terrible sicknesses of one time that anyone who thinks he has a complex is running to the

정치적, 문학적 삶의 동기와 활력이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마더 콤플렉스를 고백하며 인정한다. 가정에 무심하며 사회적 공적 활동에 전념했던 그라스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하며 급기야 별거, 이혼을 요구하는 그라스의 여인들은 그라스가 소망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성표상에 의하면, 결코 편안하고 안락함과 위안을 주는 이상적 여성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문인 이문열의 경우에는 여성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그의 소설 『선택』을 통해 살펴보자.

4. 이문열의 『선택』: 현모양처의 전형적 여성상

권터 그라스의 소설 『넙치』가 남성화자 1인칭 소설형식을 취한다면, 이문열의 소설 『선택』은 여성화자 1인칭 독백체의 소설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서사구조를 가진 그라스의 소설형식과 달리 이문열의 소설은 일직선적 단순한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사건 서술은 한숨도 되지 않고 현대소설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차적 요소만 장황한 그런 얘기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²⁸⁾라고 이문열 자신이 우려하듯이, 이 소설은 언어예술로서의 텍스트 분석이 아닌, 작가의 소설집필 의도에 초점을 맞출 때 텍스트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펜을 검처럼 생각한다”고 한 이문열이 겨누고 있는 문학적 비판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문열은 소설 『선택』의 소재를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에서 가져왔다.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는 재령이씨 문중에서 집안 어른인 장씨 부인의 덕행과 부덕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 간행한 책자이다. 소설 서두에서 장씨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나는 조선 왕조 선조 연간에 태어나 숙종 연간에 이 세상을 떠난 한 이름 없는 여인

analyst, paying his money, losing his complex - but then he ist poorer. We need complexes.” Zitiert nach Irmgard Elsner Hunt, a.a.O., S. 11.

28)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224-225쪽.

의 낮이다. (...) 나를 수백 년 세월의 어둠과 무위 속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녀의 슬픈 딸들이었다. 너희 성난 외침과 괴로운 부르짖음이 나를 영겁의 잠에서 깨웠고 삶을 덧없이 하는 한숨과 그 속절없음에 쏟는 뉘두리가 이제는 기억에서 아련해진 내 한 살이(생)를 돌아보게 하였다.”²⁹⁾ 이문열은 소설 『선택』의 서사구조로 행장의 형식을 택하였다.³⁰⁾ 작가가 전통적 한국 중세 산문형식인 행장 형식을 취한 것은 소설 속 한 인물의 삶을 독자에게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아 온 한평생을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진리와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작가적 의도가 전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문열은 수백 년 전의 여인을 불러내어 “고단하고 성가실 때도 있었지만 아쉬움 없고 뉘우침 없는 이 땅에서의 내 팔십년을, 그 술한 크고 작은 선택들을”³¹⁾ 진솔하게 한다. 문학평론가 김영민은 이런 형식을 취한 이문열의 소설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작중화자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관점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야기는 모두 회상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며, 일종의 고백적인 진술형태의 담론적 특성에 의해 통일된 어조를 지탱한다. 이 같은 담론적 특성에 따라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언행을 이상적인 것으로 표명한다.”³²⁾ 그러면 이문열이 행장의 형식을 빌려 본보기로 제시하려는 장씨부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9) 앞의 책, 7-8쪽.

30) 행장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에 지낸 이력과 업적을 기록하는 한국의 중세 산문형식을 의미한다. 소설 『선택』의 소재가 되는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는 1904년에 만들어졌다. 이 책자는 이문열의 조상인 장씨부인이 쓴 한시 7수, 서화 1수와 더불어 그녀의 아들이 쓴 행실기 및 후손들이 쓴 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앞의 책, 8쪽.

32) 김영민, 「개인적 운명 또는 삶의 선택」,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77년 여름호, 262쪽.

소설 속 여주인공의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적이다. 다른 인물들과의 대립이나 갈등 또는 내적 모순이나 동요, 긴장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는 “아내로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머니로서 보다 나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³³⁾ 하며 자신의 어머니께 “시를 짓고 글씨 쓰는 일은 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채와 부엌을 떠나지 않고 여자의 본업을 배우겠습니다.”³⁴⁾ 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쳐온 글과 그림을 어느 날 단호하게 불살라 버린다. “나는 그날로 지난날의 선택을 감연히 버렸다. 서책은 사행에 관한 것을 빼고는 모두 사람채로 올리고 시문과 글씨와 그림은 이미 남에게 주어버린 것 외에는 모두 불살라 없앴다.”³⁵⁾ 이문열은 장씨부인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 짓기 위해, 유년기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글과 그림에 재주가 있는 특별한 인물로 그렸다. 이는 이문열이 그녀를 서양 전통 교양소설의 남성주인공과 같은 자율적이며 의지적인 정신적 존재로 부각시키기를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씨부인을 교양소설의 주인공으로 전형화하기 위해 이문열이 구상한 서사적 재현장치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하며 협소하다. 왜냐하면 주체적 존재로서 높이 기리며 묘사하고자 한 ‘호방하고 원대한 큰 여인’ 장씨부인의 삶은 당시 조선시대 모든 여성들이 걸어야했던 보편적 삶의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장씨부인이 선택한 삶은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세속적 고뇌와 시련을 통해 인간적 성숙에 이르려는 우여곡절의 문학적 행보로 보기에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문열은 장씨부인을 자의식이 뚜렷한 주체적 존재로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성격묘사 및 역사적 사실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³⁶⁾ 단일

33) 이문열, 앞의 책, 60쪽.

34) 위의 책, 61쪽.

35) 위의 책, 61쪽.

36) 장씨부인의 ‘선택’은 교양 소설의 주인공이 현실에 직면하여 인간적으로 번민하고 갈등하며 내리는 고뇌어린 결단 또는 체념과 달리 너무나 당연한 듯이 쉽고 단호하게 내려진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것은 ... 뒷날의 내 삶과 연관

하고 통일된 인물의 성격만이 부각될 뿐,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렇게 구상된 이문열의 소설에 대해 장진숙은 사적 문헌을 사용하여 장씨부인과 관계된 집안의 내력을 재구성할 뿐, 예술로서의 문학적 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이문열의 서사방식을 ‘의고적 글쓰기’로 특징지었다.³⁷⁾

그러면 이문열이 ‘의고적 글쓰기’를 통해 장씨부인의 목소리를 빌어 “틀림없이 세상의 많은 것은 변하지만 더러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의 파괴력을 이겨내어 존재하고 어떤 원리들은 시대의 변화를 뛰어넘어 작용한다.”³⁸⁾고 하며 텍스트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문과 가정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머니, 아내, 주부’로서의 여성 역할이다. 이문열은 장씨부인이 가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큰어머니’로 호칭하며 그녀의 삶이 의미가 있고 영원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문열은 그녀의 목소리를 빌어 가문과 가정을 위한 ‘주부, 아내, 어머니’가 여성 최고의 행복이자 자아구현, 자기성취라고 주장한다. “내 삶은 한정된 공간에 갇혀있다. (...)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구성원들까지 포함된 가문이란 존재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공간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넓혀진다. 그 확대된 시간과 공간의 성취가 모두 너의 것이 된다.”³⁹⁾

조선시대에 가문의 중요성을 여성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열녀제도였다. 남편을 따라 목숨을 버림으로써 여필종부, 일부종사를 죽음으로 구현한 열녀들은 가문을 빛낸 훌륭한 여성으로 문중 족보에 기록되어 대대로 기리며 칭송되었다. 이들 순절한 여성들은 가문을 위해

된 어떤 신비한 끌림이었던 것 같다.”(이문열, 위의 책, 81쪽.) 이문열의 이러한 모호한 서술방식은 여성은 타고난 운명에 순응해야한다는 여성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소망이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장진숙, 앞의 논문, 164쪽 참조.

38) 이문열, 앞의 책, 18쪽.

39) 위의 책, 105쪽.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절개를 입증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연한 여성들로 숭배되었다. 소설 『선택』에서도 이러한 열녀의 모습들이 형상화된다. 장씨부인의 동서들은 먼저 죽은 남편을 따라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열녀문을 세우고 열녀전을 간행하며 여성의 정절과 수절을 기리고 칭송한 자들은 모두 사대부 남성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부장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열녀제도를 시행하며 딸들과 아내들에게 가문을 위해 희생할 것을 여성의 덕목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 소설 『선택』에서 비록 장씨부인의 입을 빌리지만, 현대여성들을 향해 꾸짖는 목소리는 조선조 사대부 남성들의 성 담론을 대변하는 작가 이문열의 목소리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진실로 걱정스러운 일은 요즘 들어 부쩍 높아진 목소리로 너희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수상스런 외침들이다. 그들은 이혼의 경력을 무슨 훈장처럼 가슴에 걸고 남성들의 위선과 이기와 폭력성과 권위주의를 폭로하고 그들과 싸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이혼은 ‘절반의 성공’쯤으로 정의되고 간음은 황홀한 반란으로 미화된다. 그리고 자못 비장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외친다.”⁴⁰⁾는 90년대 한창 서양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성문제를 공론화하던 한국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이문열의 공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이문열 소설 『선택』의 파장은 대단하였다. 가령 전여옥은 이 소설을 페미니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불안해한 작가 이문열이 의도적으로 구상한 텍스트로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소설 속 장씨부인은 ‘나 이문열’의 철저한 대역이다. (...) 제멋대로 꾸며낸 인물이다. (...) 만일 장씨부인이 실제로 소설에서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⁴¹⁾ 저널리스트 유숙렬도 『선택』에서의 여성상은 단지 “어머니로서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세된 여자”이다. 어머니로서의 자궁은 인정되나, 그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른

40) 위의 책, 9쪽.

41) 전여옥, 「이문열씨에게 문학은 권력의 매개체인가」,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1997.6.7, 15쪽.

독자적인 성은 거세된 여성“이라고 비평하였다.⁴²⁾ 이들 여성주의자들에 의하면 소설 『선택』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객관적 삶에 대한 역사적 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과장되고 왜곡된 이상화와 정형화에 의해 문학적 보편성과 시적 진실성도 결여되었다고 한다.⁴³⁾ 장씨부인은 이들 여성들이 분석하듯이 피와 살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실재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힘을 가진 지식인 남성문인이 만든 인위적 상상적 가공인물로 볼 수 있다. 실재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러한 가공적 문학적 형상화는 이문열이 봉건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여성의 성적 역할, 성규범 및 여성의 덕목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라스와 이문열은 ‘어머니, 아내, 주부’로서의 여성에 대한 동경과 소망을 제각기 문학텍스트를 통해 형상화하며 20세기 후반 시대정신의 하나인 페미니즘에 대해 회의적,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전망과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

42) 유숙렬, 「예술과 폭력사이에 꽃피는 남근의 명상」, 『페미니스트 저널 IF』 창간호, 1998, 28쪽.

43) 역사학자들은 장씨부인을 신사임당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인물로 특징짓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유년기부터 시화에 탁월한 재능과 성취를 보이고 출가하여 남편을 격려하고 이끌면서 학업에 정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성 역사학자들은 이들 여성들을 가문과 남편, 자식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한 여성들로만 평가하지는 않는다. 가문과 남편에 순종하는 여성상은 조선 후기 삼종지도, 칠거지악을 규범으로 추종하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부여한 사회적 공공성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문열의 소설 『선택』에서도 비슷한 착종이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조선사회에 유교이데올로기가 정착되어 가부장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조선중기는 아직 전환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장씨부인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사회에 가문이 여성을 억압적 이데올로기가 되어 개인을 압박하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표상, 여성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가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진숙, 앞의 논문, 166쪽 참조.)

44) 소설 『선택』은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텍스트라는 여성주의자들의 공세에 대해 이문열은 “저속하게 이해되고 천박하게 추구되는 페미니즘”에 대해 올바른 여성적 삶의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소설 『선택』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소설을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주장한다.

의 집필 의도는 동일하지만, 소설을 통해 드러내는 시대정신에 대한 이들의 문학적 입장과 성찰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다음 장에서 비교·조명해 볼 것이다.

5. 이문열과 그라스의 여성표상의 차이

그라스와 이문열은 현재 논의되는 시대적 이슈에 적극적 관심과 입장을 문학학을 통해 공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문학적 공론화를 통해 페미니즘 담론에 개입하는 그들의 입장과 견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여성문제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역사 및 젠더의식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다.

그라스와 이문열의 여성표상은 모두 생물학적 이분법적 성별 구도에 입각한 모성신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서로 다른 점은 역사와 관련한 그들의 서로 다른 젠더의식이다. 그라스의 소설에 의하면 역사 이전 모계사회 때 남성으로 하여금 자연과 여성을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문명적 업적을 시작하도록 사주한 것은 소설 속의 말하는 넙치였다. 넙치는 남성들을 향해 말한다. “나는 지식과 권력을 너희들에게 부여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로지 전쟁과 참혹함만을 도모했다. 너희들에게 맡긴 자연을 너희들은 착취하고 오염시키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파괴해 버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펼쳐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은 세계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굶주림이 증가하고 있다. 너희들의 시대는 불협화음을 내며 끝나가고 있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도처에서 광기가 궤변을 토한다. (...)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충고할 수 없다.”⁴⁵⁾

45) “Wissen und Macht habe ich euch verliehen, doch nur Kriege und Elend habt ihr bezweckt. Die Natur wurde euch anvertraut, worauf ihr sie ausgelauert, verschmutzt, unkenntlich gemacht und zerstört habt. Bei all dem Überfluß, den ich euch eröffnen habe, könnt ihr dennoch die Welt nicht satt machen. Der Hunger nimmt zu. Eure Ära

소설을 통해 본 그라스의 관점에 따르면 문명사는 남성에 의한 자연정복의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는 위계질서의 가부장 남성중심사회를 만들었다. 자연정복과 여성지배로서의 역사발전이 파괴적인 과정으로 가면 이 벗겨진 오늘날, 이제 남성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 속 넘치는 남성에게 등을 돌리고, 여성 편에 서서 여성이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충고하고자 한다. 그라스는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남성 지배에 대해 생명을 잉태하고 삶을 보존하고 가꾸는 모성적 여성을 대안으로 표상한다. “아, 일제빌! 난 넘치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꿈을 꾸었소. 나는 넘치와 당신의 웃음소리를 들었소. (...) 그대들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 곳에 있었소.”⁴⁶⁾ 그라스는 소설 속 화자를 통해 이제 앞으로의 모든 희망을 여성에게 기대한다. 그러나 그라스는 동시에 여성들의 세상지배에 대한 우려와 회의도 넘치를 통해서 표명한다. 페미니스트 범정에 잡혀 온 넘치는 “(...) 나는 여성들에게 장시간 지속되고 존속하는, 초지상적인 충고가 없다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죄의 화신이자 남성적이고 호전적 원리로 증명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일을 (...) 충고하는데 적합할 수 있을까?”⁴⁷⁾ 그라스는 남성지배의 역사 발전을 회의하고 여성들에게 희망을 걸지만, 이들 여성들을 유토피아 미래의 역사적 주체로 확신하면서 절대화, 이상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문열의 경우는 어떨까?

이문열의 소설 『선택』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에 살았던 장씨부인이 오늘날 현대여성들에게 불변의 전형적 여성상으로 제시된다. 그가 여성을

klingt mißtrönend aus. Ob im Kapitalismus oder im Kommunismus: Überall vernünftelt der Wahnsinn. (...) Euch ist nicht mehr zu raten.” Günter Grass, *Butt*, WA Bd. V, S. 531 f.

46) Günter Grass, WA Bd. V, S. 532.

47) “Das Feminal wird nicht folgenlos bleiben (...) Fast fürchte ich, den Frauen fehlt Rat, nachhaltiger, fortwährender, Ja, überirdischer Rat. Doch wie sollte ich, das verkörpert schuldhaftes, das männliche und nachgewiesenes kriegerisches Prinzip geeignet sein, die Sache der Frauen, fortan nur noch die Frauensache zu beraten? Ich will. Ich könnte. Schon wüßte ich wie.” Günter Grass, WA Bd. V, S. 617.

자율적·주체적인 존재로 서술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 아내, 주부’의 전통적 성적 역할과 연관시킨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문, 가족을 위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시공을 초월한 영원하고 불변적인 여성의 덕목으로 드높이고 그것을 자아구현, 자아확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차피 너는 육십년 혹은 칠십년 제한된 시간만을 살고 가야한다. 그러나 가문이란 것에 너를 던지고 동일시를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앞서 살아간 조상들의 삶을 네가 이었듯이 대대로 이어질 네 자손에게까지 네 삶은 연장 된다.”⁴⁸⁾ 이러한 표상은 궁극적으로 여성을 육체를 배제한 초월적 정신적 존재로 만들면서, 실제 여성의 세속적 현실적 삶을 추상적·사변적 관념세계로 빠지게 한다. 반면, 그라스의 소설 속 여성들의 모습은 물질적·역사적인 구체적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 그라스도 모성적 여성상을 동경하고 갈망하지만, 결코 여성을 영원불변의 초월적 개념과 관념으로 절대시하며 변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는 소설에서 여성들이 요리를 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아내, 어머니, 주부’의 성적 역할을 하도록 형상화하지만, 동시에 이들 여성들을 상황에 따라 가사와 양육을 거부하며 때로는 남성을 독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섬뜩한 여성으로 변신시킨다.

이문열의 의식 속에는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사회적 성적 존재로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육체적 인간의 모순과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장씨부인은 처음부터 너무나 단호하고 투철하며 완벽한 정신적 존재로 무장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문열은 장씨부인을 오로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정신적 존재로서 탈 육체, 탈 역사화하면서 가부장제의 수호자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장씨부인은 현실의 저편에 있는 완벽하고 고귀한 그 누군가에 의해 이미 여성으로서의 삶이 조종되고 결정되었다. 이러한 장씨부인의 형상은 바로 가부장 남성주체가 만들어낸 소망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가부장 의식을 가진 이문열의 자기반영이며 자기투사가 된다. 반면, 그라스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억압, 배제, 소외

48) 이문열, 위의 책, 105쪽.

된 여성들의 상황을 변증법적 역사 발전과정의 필연적 모순으로 인식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적 저항과 그들의 여성성 구현에서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기대한다. 이문열은 그라스와 같은 변증법적 역사의식, 젠더의식이 없다. 그라스가 자신의 주관적 소망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과 세상법칙을 끊임없는 회의와 객관적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문열은 과거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한 여성이 살아온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여성의 삶으로 절대시하며 이상화한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의하면 남성은 언제나 자신의 관점으로 여성을 표상한다. 여성은 언제나 남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 성적 규범으로부터 '새로운 여성'으로 변신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이문열에게 "저속하고 천박스럽다". 이문열은 『선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요즘 유행하는 여성의 자기 성취에 관한 논의에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간계가 끼어들지 않았는지 솔직히 의심이 간다. 문화마저 상품화에 성공한 자본주의가 방대한 시장개척을 위해 여성에게 걸고 있는 집단최면이 바로 그 요란한 자기 성취의 논의 아닐는지."⁴⁹⁾ 이러한 언급은 이문열의 폐쇄적이며 경직된 역사의식과 젠더의식을 드러내며, 그의 소설 『선택』은 사회변혁의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페미니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라스는 여성을 역사적, 사회적 제 조건과 더불어 언제나 변화하는 모순적 존재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여성들을 본능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 사이에서 불화하는 변증법적 모순적 존재로서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문열의 경우에는 시대적 모순과 불화하며 욕망하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여성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이문열의 여성은 육체가 배제된 정신적,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겪으며 형성된 두 작가들의 '문학적 공공성(literarische Öffentlichkeit)'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탈근대

49) 이문열, 앞의 책, 17-18쪽.

의식을 향해 열려있는 그라스와 달리, 이문열은 시대착오적으로 여전히 불변의 절대적 이상이 전제된 근대적 관념성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앞장에서 서술한 독일 18세기 남성지식인의 성 담론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그렇지만 그라스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변증법적 역사인식을 통해 여성을 사회적 가변적 존재로 보는 젠더 의식을 표명하고 있지만, 모성적 여성상을 동경하며 남성적 역사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을 '자연'으로 표상하려는 관점은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상은 페미니즘 비평에 의하면 여성이 적응해야만 하고 거기에 맞추어야만 하는 규범적 기능을 하면서 실재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 정체성 추구를 위한 보조물 또는 이들의 도피처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결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남성지식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분법적 극단적인 여성상을 성 담론 또는 가부장 문학을 통해 찬미·비난하면서 여성을 자연적 성적 존재로 만들어 왔을까? 프랑스 여성주의자 보부아르는 그 이유를 여성 육체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으로 설명한다. 남성에게 있어서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부가 자주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을 하강한 신으로 여긴다. 인간이 빛나고 질서정연한 천국으로부터 어머니의 육체라는 혼

50) 강준만은 지식인 문인으로서의 이문열의 사회적 공적 활동을 ‘기만의 수사학’으로 특징짓는다. “이문열의 『선택』을 보며 거듭 떠오르는 생각은 그의 작품세계에서 일관적으로 취해 온 것들 중의 하나가 <사회 거꾸로 보기>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기서도 페미니즘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준만은 이것을 이문열의 가족사로부터 설명하며 ‘아버지 콤플렉스’로 이해한다. 월북한 사회주의자 아버지 존재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돈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신의 저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순수한 이상처럼 되기 원한다. (...) 저주는 그의 운명을 압박하며 불안,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얼룩을 붙여놓는다.”⁵¹⁾ 보부아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과 불안을 육체를 배제하고 오로지 정신적 존재로서만 인간을 규정하는 왜곡된 남성적 지식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다.⁵²⁾ 다시 말하면 남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창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 보살핌, 양육 등은 전적으로 어머니인 여성에게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성은 그러한 여성의 육체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지적으로 보다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정신적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⁵³⁾

보부아르의 ‘타자’개념에 의해 영향 받고 대두된 서양 페미니스트들은 80년대 본격적으로 그동안 남성지식인들의 성 담론에 의해 억압, 왜곡, 배척되어 온 여성의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성적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말부터 한국에 유입되어 90년대 한국사회에 크게 유행한 서양 담론 중의 하나가 바로 보부아르를 선두로 한 유럽

51) Simone de Beauvoir, *Das andere Geschlecht*, Hamburg 1968, S. 157 f.

52) 프로이트는 “타고난 육체는 운명이다 Anatomie als Schicksal”로 정의한다. 페니스를 가진 남성은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은 문명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라 한다. 이에 대해 남근이 결여된 여성은 열등하다고 한다. 이러한 테제에 반하여 프로이트와 동시대인 Karen Horney는 논문 「Flucht aus der Wirklichkeit」에서 반대테제를 발표했다. 임신, 젖가슴, 수유 등 심리적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능력이 심리적 우월감을 여성에게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남성들에게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53) 보부아르와 유사하게 비판이론의 대표하는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도 여성을 자연으로 보는 관점을 남성주체의 도착적이며 왜곡된 의식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의 발전은 자연의 정복을 의미하며 자연인 여성은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 정복되어야 할 대상에 속한다. 왜냐하면 “여성도 주체가 아니다. 여성은 생산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며 가꾼다. (...) 무한정 자연을 지배하는 것, 우주를 무한한 사냥터로 변화시키는 것이 수천 년이래 꿈꾸어온 남성의 소망이었다. (...) 자연의 정복이 진정한 목표가 되는 곳에 생물학적 열세는 낙인으로 남는다. 즉 자연에 의하여 특정 지워진 나약함이 폭력행위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처”라는 것이다. Max Horkheimer,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Amsterdam 1947, S. 298.

68학생 운동세대 지식인 여성들이 주도하고 발전시켜 온 페미니즘 이론이다. 본고가 분석한 그라스의 『넙치』와 이문열의 『선택』은 페미니즘이 한창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각자 자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을 겨냥하며 집필한 소설들이었다. 연구자의 관심은 수세기 동안 남성 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상이 오늘날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본고는 이들 현대 지식인 남성문인들의 여성표상이 어떠한 논리와 글쓰기 방식으로 재현되며 또한 이들이 문학적 공론화를 통해 환기시키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의 소설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차문헌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귄터 그라스, 김재혁 역, 『넙치』, 민음사 2002.

Grass, Günter, *Werkausgabe in zehn Bänden. Bd. V*, Volker Neuhaus(Hg.), Darmstadt/Neuwied 1987.

이차문헌

권영민, 「개인적 운명 또는 삶의 선택」,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97 여름.

강준만, 「이문열을 알면 한국사회의 문법이 보인다」, 『인물과 사상』 통권 47호, 인물과사상사, 2002.

신영숙, 「한국 가부장제의 사적 고찰」, 『여성, 가족, 사회』,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1991.

안남연, 「이문열의 선택과 페미니즘 논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0.

장진숙, 「중세여성의 유행인가? 현대적 재창조인가? 고전문학연구자의 눈으로 본 이문열의 선택」,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정정순, 「가부장제 담론과 성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학 교육적 고찰」, 『여성문학연구』 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이호숙, 「고착적 여성 이미지의 전범: 이문열의 소설」. 『한국문학연구』, Vol 5.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7.

이인화,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해석논쟁」, 『문학교육학』 2011, Vol.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Arnold, Heinz(Hg.). *Günter Grass. Text+Kritik*. München 1988.

Beauvoir, Simone de. *Das andere Geschlecht*. Frankfurt/M. 1968.

- Beck, Ulrich/Elisabeth, *Das ganze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M. 1990.
- Grimm, Reinhold Hermand Jost(Hg.), *Natur und Natürlichkeit*. Regensburg 1981.
- Grubitzsch, Helga, *Grenzgängerinnen. Revolutionäre Frauen im 18. u. 19. Jahrhundert*, Düsseldorf 1985.
- Hermes, Danica u.a.(Hg.), *Günter Grass im Ausland*. Frankfurt/M. 1990.
- Hunt, Irmgard Elsner. *Mütter und Müttermythos in G. Grass' Der Butt*, Frankfurt/M. 1983.
- Marianne Burkhard(Hg.), *Gestalt und gestaltend. Frauen in der deutschen Literatur*, Amsterdam 1980.
- Max Horkheimer,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Amsterdam 1947.
- Mazer-Ischwandy, Claudia, *Vom Glück der Zwitter Geschlechterrolle und Geschlechterverhältnis bei G. Grass*. Frankfurt/M. 1991.
- Michael Jürgs, *Bürger Grass, Biographie eines deutschen Dichters*, München 2002.
- Neuhaus, Volker: *Günter Grass*. Hamburg 1979.
- Nünning, Vera-Ansgar(Hrsg.): *Methoden der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lichen Textanalyse*. Stuttgart · Weimar 2010.
- Schmidt, Ricarda, *Westdeutsche Frauenliteratur in den 70er Jahren*. Frankfurt/M. 1990.
- Sommerhof, Barbara, *Special Frauenbewegung*, Hamburg 1995.
- Vormweg, Heinrich, *Günter Grass*. Hamburg 1986.
- Weischedel, Wilhelm(Hg.), *Kant Werkausgabe Bd. 2*. Frankfurt/M. 198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Male Writers Through Feminist Literary Criticism:

Focusing on Mun-yol Lee's *Choice* and Gunter Grass' *Der Butt*

Soon-Nan Chang
(Sogang University)

The influence of feminism in Korea started in the mid-90s whereas, in the case of Germany, it started as early as the 70s. Western feminists affected by the concept 'the other' of Beauvoir began to actively explore sensory and physical sexual characteristics of women that were oppressed, distorted and rejected by men. It was natural for men to feel anxious and threatened by them since radical feminists who emphasized emotional body over rational spirit could shake sexual norms and order of the existing society. When feminism was widespread attracting global interest and attention, writers Grass and Mun-yol Lee who represented Germany and Korea were both involved in the sexual discourses by raising the issues of feminism through literature. This study compares the sex consciousness of Eastern and Western male writers whose historical-cultural background and political beliefs were different but had similar basis of feminist literary criticism. Grass' novel *Der Butt* and Mun-yol Lee's *Choice* analyzed in this study both were novels written in the midst of the time when feminism was active in society, both aimed at feminists. This study found that the symbol of women that male writers had created for centuries was still reproduced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literature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gic and writing style of male writers. In the first

section, I investigated how female sexual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al sex roles that feminist criticism noted were organized historically in the Western society. Then I examined the ways in which these discourses were still reconfigured and acted in the literature to maintain and consolidate patriarchal soci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the contradiction and limits of modern people(men)'s identities.

Key words : male writers, feminism, mother, nature, Mun-yol Lee, Günter Grass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